

보수통합 논의 물살... 꼬여가는 패트 정국

유승민 "탄핵의 강 건너면 대화 시작"... 황교안에 대화 제안 민주 "묻지마 보수통합 유감"... 예산안 처리 등 영향 불가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보수 야권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여권이 공들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데다, 총선 대결 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 대통합 제안에 대해 평가절하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통합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대어 공세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7일 황 대표가 '공관법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보수통합으로 한국당 내 논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묻지마 보수통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관법 갑질 인사의 영입 이유를 묻는 국민 질문에 대한 답이 '묻지마 보수통합'이라는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와대 참모의 파면 공세를 하면서 전날 예결위를 파행시킨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의장은 "한국당이 어제 강 수석의 예결위 출

석을 문제 삼으면서 예산 심사 일정을 보이콧했다"면서 "셀프 표창장 납발, 인재영입 참가 등 당내 갈등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 심사를 볼모로 지출한 정치투쟁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거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통합과 관련한 간접 대화를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세력 통합은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맞서 모든 자유민주세력의 통합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변혁 회의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3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켜준다면 다른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일단 상대방의 선의

를 믿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3가지 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낮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것이다.

일단 황 대표와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불문(不問)'을 전제로 의견이 접근된 상태다. 또 '낮은 집'을 허물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제안에도 황 대표는 "(간판 교체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당 초선 의원 20여명은 이날 회동을 갖고 "보수 대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처럼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보수통합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정에서 추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권은희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바른미래 신당기획단 공동단장 "우리의 길 간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이 7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이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유의동 의원과 함께 변혁 내부에 설치되는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은 권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 반대에 분명한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보수통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혁은 손학규 대표가 허울뿐인 당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제3지대의 중심인 바른미래당을 무너뜨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 대표가 당을

망가뜨리는 것을 저지하는 노력이 열매를 맺기 쉽지 않다. 이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어제(6일) 황교안 한국당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제안했다"며 "통합은 없다"고 공언했다. 권 의원은 "정치와 국회의 세대교체로 미래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중 그 누구도 정치와 국회의 세대교체를 해낼 수 없다"면서 "스스로가 교체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대교체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총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총리 사과에 예결위 정상가동

이낙연 "강기정 수석, 스스로 절제했어야"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 고성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회 예결위가 정상가동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화날 때도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라며 "더군다나 그것(논란)이 국회 운영

에 차질을 줄 정도로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고성을 동반한 논쟁을 벌인 것에 사과한 것이다.

이 총리의 사과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 대표로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오늘 맞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다"며 "스마트하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며 야당 소속인 저 역시 감동이며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총리께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허위출장 논란 구의원 4명 북구의회 자체 징계 검토

민주당 광주시당이 '허위 출장' 논란을 빚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 4명을 징계한 데 이어 북구의회도 자체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허위출장 논란을 빚은 구의원 4명을 자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심사안을 회부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최기영 의원은 "민주당의 징계 결정과는 별도로 북구의회 자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가 심사를 거쳐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이다.

앞서 북구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9월 26~27일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정작 통영시의회는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에 해당 의원들을 회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은 당일 자격정지 3개월, 김건안 운영위원장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등 징계를 결정했고, 다른 초선 의원 2명은 서면경고했다.

해당 의원들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與, 비례대표 공천심사단 '2030' 절반 포함 검토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 실현”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걸 공동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 공천 과정부터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 '2030세대' 청년을 절반가량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여성·청년이 후보자가 되는 것을 넘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청년층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

며 놓친 2030세대의 표심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당은 단순한 표심 확보를 넘어 한국 정치 개혁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은 공천기획단에 27세의 프로그래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를 '깜짝' 위촉하는 등 청년 위원을 여럿 포함하면서 이미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황희두 씨의 기획단 위원 위촉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당내 내년 총선에 영입할 20대와 30대 인재를 찾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지역 민심 잡기 투여

13일부터 전국 14개 시도당 순회 현장 최고위 주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는 13일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당 지역을 잇따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사당의 내년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 현장을 찾아 경제·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사태 이후 내부에서 분출된 쇄신 요구를 정리하고 지역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총선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 현상이 발견된 만큼 취약 지역 및 계층을 겨냥해 지역 맞춤형 구애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당은 각 시도당으로부터 방문을 원하는 현장을 신청받고 있으며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도 챙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정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 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